인류적 보편성과 개인적 기질의 분리문제
- 김현승의 경우

김윤식 *

Ⅰ. 방법으로서의 고육책
Ⅱ. 워스워즈와 릴케 사이에서
Ⅲ. 죽음에 마주친 축복받은 고독
Ⅳ. 사실과 관습의 균형감각
Ⅴ. 고독과 미의 동시성

Ⅰ. 방법으로서의 고육책

(객) 오래전 선생이 쓴 「신앙과 고독의 분리문제- 김현승론」(시문학 1975. 7.)은 골드만의 역작『숨은 신』의 방법론으로 결말을 삼았더군요. <데카르트는 신앙인이지만 그의 합리주의는 무신론인 것이다.>라는 명제가 그것이지요. 아마도 선생은 그 무렵 시인 김현승보다는 문학연구의 방법론에 관심이 기울어졌던 모양이더군요.

(주) 그 무렵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합니다. 문학연구도 과학(학문)의 일종일 수 있을까. 좀더 겸허히 말해 어느 수준의 객관성(설득력)을 획득할 수 있을까. 이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지요.

모든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다양 복잡한 인간관계의 총체는 매우 자주 한편에는 그의 일상생활과 다른 한편에는 그의 개념적 사고나 그의 생산적 상상력 사이엔 <단절>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것 사이에는 너무도 매개된 관계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실제 문제로서 다소라도 적확한 아

* 서울대 명예교수, 문학평론가.

무런 분석도 손댈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작품 이해를 가능케 하는 행동이 작가의 그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회적 집단의 행동일 경우 만일 저자의 인격을 통해서만 혹은 주로 인격에만 의지하여 작품을 이해하려 한다면 작품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의미 등은 반드시는 무엇보다도 역사철학자에 관심 있는 그것의 객관적인 의미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객)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골드만이 내세운 것이 유명한 비유, 곧 <두 사람의 책상들기> 아닙니까. 창작(사상)의 주체란 개인일 수 없고, 집단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레마스(Greimas)는 이점을 이해하고는 싶지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더군요.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요.

여기 책상이 있다고 칩시다. 무겁기 때문에 이를 들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이 책상을 드는 주체는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이 아니라 A와 B인 것입니다. 책상이 들렸다는 사실은 오직 하나의 <집단주체>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체적 구조와 의미를 추출해야 되는 예술작품에 직면할 땐 유독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인 김현승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 만약 내가 김현승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김현승 작품의 기능성(의미)을 묻노라면, 이러한 연구를 수포화하는 두 가지 기본 난점에 마주치게 되지요. 첫째, 김현승의 개성은 너무나 복잡하여 나는 사실상 그것을 과학(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작품의 기능성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 점이 중요한 데, 만약 내가 이러한 방법(개인관계)으로 기능성에 대한 하나의 가설에 도달할 수 있다 해도, 그 가설은 작품의 문학적 혹은 문화적 특성과 아무런 관계도 없을 것입니다. 이때의 기능성이란 미치광이의 그림이 그 미치광이에 대해 지니는 기능성, 혹은 보통사람의 작문이 그 보통사람의 심리에 대해 지니는 기능성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집단주체는 하나의 경험적 문제입니다. 곧, 전반적 행위가 나에게 이런 유형의 심적 구조화를 하나의 기능적 현실로서 부여하는 그리고 그 연구가 작품의 내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사회 그룹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골드만, 『현대사회와 문화충격』, 천희성 역, 1982.)

(객) 요컨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책상을 들어 올릴 때라야 어느 수준의 객관성이 보증된다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어째서 선생

이 유독 김현승론에서 이런 난점에 봉착하여 안절부절 상태에 빠졌던가에 있지 않은가요. 요컨대 김현승시에도 흥미가 있지만 그 논자에도 흥미가 있다는 것,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주) 그쪽에서는 어째서 유독 골드만의 과제가 김현승시 앞에 크게 노출되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려. 작가론이 안고 있는 아포리아의 하나를 묻고 있습니다 그려.

Ⅱ. 워스워즈와 릴케 사이에서

(객) 김현승시의 유별남이란 과연 무엇일까. 선생이 착목한 데는 신앙과 고독의 분리문제였던 것. 그러니까 통념과 위배되거나 상용치 않는 대목이겠는데요. 목사의 아들이며, 형까지 목사였던 김현승에 있어 기독교 신앙이란, 통념상으로는 최고의 이념이자 지향성이었을 터입니다. 이러한 신앙인이 고독을 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그것도 <절대고독>

(객) 참 그렇군요. 그냥 <고독>이 아니라 <절대고독>.

(주) 내가 김현승론을 쓰고자 한 것은 아주 세속적인 계기에서입니다. TV가 아직 흑백이던 1974년을 전후한 두 해 동안 <명작의 고향>(KBS 교양물)의 사회를 맡은 바 있었지요. 김현승 차례가 되어 시집을 검토하다가 <절대고독>앞에 부딪쳤지요. 묻지도 않았는데 시인 자신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회고돼요. 「기독교 신앙인이 고독하다니 하고, 주위에서 의아해 하고 있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주위>란 아마도 교회주변을 가리킴이기보다는, 문단인을 지칭함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신에 귀의하고, 신의 품에 안겼다면 고독할 수 없다는 것. 신과 더불어 한 치 틈도 없이 살아간다면 어찌 고독할 수 있겠는가. 그런 시인이라면 응당 모든 시가 신에의 찬미에 바쳐져야 당연하다는 것. 그런데도 신앙인 김현승의 시에는 신에 대한 찬미가 없을 뿐 아니라 <절대고독>까지 내세우고 있다는 것.

(객)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할 때의 김현승 표정은 어떻든가요.

(주) 낮은 목소리였고 조금은 씁쓸한 표정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적

극적으로 그 부당함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주변의 몰이해를 탓하지 않는 목소리였다고나 할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 무렵 김현승의 가장 아픈 대목이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주위 사람들의 쑥덕거림이란 실상 시인 자신의 양심의 쑥덕거림이 아니었을까.

「信仰을 가리켜 그러나 고독에 나리는 祝福이라면
깊은 信仰은 우리를 더욱 고독으로 이끌 뿐,
내 사랑의 뜨거운 피로도 너의 肉體를 속일 수는 없구나!

抽象으로도 肉體로도
溶解되지 않은,
오오, 너의 이름은 모든 愛情과 信仰을 떠나
내 마음의 王國에서 自由와 獨立을 열렬히
呼訴하는구나!」
(「인간은 고독하다」, 1957. 7, 8연)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러하다는 것. 그러기에 원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것. 고독과 신앙이 나란하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능가함이 고독이라는 것.

신앙이 짙을수록 고독이 더욱 굳어진다는 것. 어떤 것으로도 이 고독을 해소시킬 수 없다는 것.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용해되지 않는 견고한 고독이라는 것. 이렇게 되면 신앙에서 촉발된 고독이 마침내 인간적인 모든 애정은 물론 출발점인 신앙조차 떠난다는 것. 마침내 그 결과 그 고독이 <나>를 능가하고 <나>를 떠난다는 것. 절망이 아닐 수 없지요. 내 속에서 키워진 고독이 <나>를 떠나 사물(자연)의 질서 속에 들어가 정작 그를 키워낸 <나>를 불쌍한 듯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는 것. 구원이 아닐 수 없지요. 드디어 절망과 구원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나>라는 것.

(객) 아마도 선생은 위의 시에서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었겠지요.

하나는 순수 서정시인 워스워즈(1757~1877)의 「수선화」 4연 끝부분의 멋진 대목. <고독 위에 내리는 정복(淨福)>(the bliss of solitude)이 그것.(이재호 역 『낭만주의 영시』, 탐구당.) 수선화의 이미지가 <고독위에 내리는 정복>이라 워스워즈가 읊었다면 김현승은 수선화 대신 <신앙>을 대치시킨 거죠. 수선화가 전원시인에겐 순수한 자연을 가리킴이고, 그러기에 수선화

는 고독한 자의 축복이지만 목사의 아들로 자라 교회와의 관계가 일상이었던 김현승에겐 자연 대신 신앙이 그 자리를 차지함이란 무엇인가. 신앙이 깊어지면 고독도 짙어진다면 신앙과 고독은 비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지요. 그러기에 <내 사랑의 뜨거운 피>로도 고독을 견제할 수 없다함은 결국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음에 주목할 것입니다. 고독이란 모든 애정과 신앙조차 넘어선다고 했으니까. 신앙도 애정도 넘어선 자리에 놓인 고독이란 그러니까 <절대성>이 아닐 수 없지요. 육체도 관념도 넘어선 자리에 올려진 고독이니까. 신앙이란 새삼 무엇이뇨. 기껏해야 <고독>을 위한 예비단계, 고독을 기리기 위한 한갓 장식물이거나 고독을 유도하고 그래서 축복해주는 격려자일 뿐.

(주) 신앙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축복을 받아 비로소 고독에 이르렀다는 것이라면 신앙이란 고독에 비해 한갓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 신앙의 축복을 받았기에 고독은 신앙보다 더 절대적이라는 것. 육체보다 관념(추상)보다 근원적이라는 것. 그렇다면 신앙보다 우위에 놓인 <고독>이란 대체 무엇인가. 이 물음 속에 천금의 무게가 실려 있는 형국. 우리가 물을 수 있는 데는, 그러니까 김현승이 말하는 신앙의 성격이 아닐 수 없지요. 신이란 고독에 비해 절대일 수 없다는 것이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가 신앙이란 기독교적인 신이란, 절대이기는커녕 고독에 비해 별 것 아닌 것이지요. 기독교의 신을 능가하는 고독이라는 새로운 신을 모색했던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지요. <절대고독>이라 한 것은 이를 가리킴이지요. 이를 상징화함에 있어 워스워즈의 힘을 빌었다고 하겠지요. 다른 하나는?

(객) 다른 하나는, 선생이 이미 언급했듯 인간이란 피조물이라는 것.

「나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책을 덮게 한 고독이여!
비록 우리에게 가브리엘의 성좌와 사탄의 모든 저항을 준다 한들
만들어진 것들은 고독할 뿐이다!
인간은 만들어졌다!
무엇하나 이 우리들의 의지 아닌
이 간곡한 자세— 이 절망과 이 구원의 두 팔을
어느 곳을 우러러 오늘은 벌려야 할 것인가」
(「인간은 고독하다」, 끝부분)

피조물로서 인간의 운명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그 운명과 맞서는 장면이란 어떤 것인가. 일찍이 이 물음에 직면하고 이를 타개하고 수용하기 위해 골똘히 생각한 사람은 시인 릴케입니다. 김현승을 논하는 자리에서 자주 사람들은 릴케와 연관시키곤 합니다. 릴케의 사물시(事物詩)와 김현승의 관련성의 지적이 그것.

견고하다든가, 가을이라든가, 열매 등에서 두 시인의 관련성은 쉽사리 찾아집니다.(김종길「견고에의 집념」, 창작과 비평, 1968년 여름호.) 그러나 김현승의 릴케 독법은 좀더 깊은 곳에 있지 않았을까. 피조물인 인간이 직면한 절망과 그것에서 구원당할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릴케만큼 민첩한 정신은 드물지요.

(주) 사물(Dinge) 만들기가 그것.

(객) 바로 그것. 릴케식으로 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마주친 고독 또는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 사물 만들기인 것. 로댕이 그 대표적인 사례. 로댕이 만든 것은 단지 <사물>이지 예술품이거나 아름다운 조각 따위가 아니라는 것.

「어떤 사물이겠습니까? 아름다운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관절 미(美)가 무엇인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와 비슷한 것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의 사물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것,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 있는 이해 불가능한 무엇이 다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그런 물건을 바랐던 것입니다.」(릴케, 「로댕」, 핏셔서점, 1955, p. 10.)

(주) 피조물인 인간이란 실로 일찍부터 자연물을 원형삼아 힘들여가며 사물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이기도 하지만 일상은 피조물의 조건(허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충동에서였던 것, 자기가 만든 물건이 이미 있었던 자연물과 나란히 그처럼 인정을 받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자연물 곁에 놓여 있는 것을 보는 일만큼 진기한 경험이 달리 있을까. 되는대로 일하는 가운데 맹목적으로 무엇인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위협 받은 채 자연 그대로인 생명의 흔적을 제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생명은 온기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어 사람의 손을 떠나기가 바쁘게 벌써 사물 속으로 들어가 버려 사물이 가지는 침착성과 조용한 품위를 얻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이제는 마치 세상에서 멀어

지기나 한 것처럼 서글피 합의를 보고서 그 영속하는 저편으로부터 이쪽을 바라다 볼 뿐, 이 굉장한 체험은 너무나 이상야릇하고 강렬한 것이어서 오로지 이런 체험을 해보려고 만들어진 물건이 별안간 나타났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신의 모습을 만든 것은 이런 체험에서 가능했다는 것,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것이나 동물적인 것으로부터 함께 사멸하지 않는 것, 영속적인 것, 그보다 한 층 더 고차적인 것, 곧 <사물>을 만들려는 시도였던 것.

(객) 피조물인 인간이란 어차피 죽게 마련인 것, 운명이니까. 자기가 만든 사물이 완성되자마자 자기 손을 떠나 사물의 질서 속에 들어가 창조자인 인간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이란 얼마나 충격인가. 어차피 죽을 운명의 <나>를 내가 만든 사물쪽이 불쌍한 듯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니! 최초로 신의 모습을 만든 인간의 체험이란 바로 이것.

(주) 요컨대 김현승 시인은 신앙상으로도 서구적이지만, 시의 운용방식에 있어서도 서구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구적인 방식은 모방도 거역도 아니지만 단순한 영향관계와도 구별되는 특수한 관련양상이라 하겠지요.

> 그러면 우리를 고독케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 일어버린 지평선(地平線)— 저 풍요(豊饒)하던 창고(倉庫)들인가,
> 헬렌의 슬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 준 호우머의 시(詩)들인가,
> 아니면 사랑이 가고 지혜(智慧)가 오기 전 무성던 저 무화과(無花果)나무의 그늘들인가.
>
> 비록 그것들에 새로운 시간(時間)의 수액(樹液)을 흐르게 하여,
> 현재(現在)와 미래(未來)의 꿈 많은 여정(旅程)을 주어,
> 시(詩)를 산문(散文)으로 종합(綜合)을 분석(分析)으로, 결핍(缺乏)을 생산(生産)으로
> 성장케 한들 그것은 또한 무엇인가?
> (「인간은 고독하다」, 9, 10연)

서구적인 논법이나 사상이 아무리 대단해도 별것 아니라는 것, 피조물인 인간의 운명(고독) 앞에서는 실로 쓸모없다는 것, 그렇다면 대체 이 서구적인 시나 사상이나 관념(추상)이란 무엇인가. 피해갈 수 없는 물음이지요.

Ⅲ. 죽음에 마주친 축복받은 고독

(객) 신앙보다 윗자리에 놓인 것이 고독이며, 설사 그것이 신앙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정은 마찬가지. 그 신앙이 만일 기독교라면, 기독교인 김현승에 있어 고독이란 기독교를 넘어선 새 영토, 이른바 새로운 신, 그러니까 <낯선 신 찾기>에 해당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려. 새로운 교주되기라고나 할까. 아니 스스로 신되기이겠지요. 이런 현상은 스스로 신(교주)되기를 모색했던『황토기』(1939)의 작가 김동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소설의 김동리와 시의 김현승이란 이 점에서 매우 닮았다고 할 것입니다. 김동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김현승의 목소리가 차디차다고나 할까요.

(주) 김현승이 이르고자 하는 곳은 교주의 자리가 아니지요. 유일 절대한 자리 곧 <혼자인 신>입니다. 어떤 신도도 없는 그런 자리, 고독한 신이지요. 성내지도 않고 자비심 따위도 걷어치운 그런 신이지요.

「나의 고독은 구원에 이르는 고독이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리는, 구원을 포기한 고독이다. 수단으로서의 고독이 아니라 나의 고독은 순수한 고독 자체일 뿐이다. 그러므로 나의 고독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진정한 고독이다.」(김현승 산문집『고독과 시』, 지식산업사, 1977.(재판), p. 210.)

보다시피 교주되기와는 현저히 다릅니다. <절대고독>이라 한 까닭이지요. 영혼까지 포기한 경지인 만큼 신을 문제 삼을 수 없는 경지인 것.

거기서
나는
옷을 벗는다.

모든 황혼이 다시는
나를 물들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끝나면서
나의 처음까지도 알게 된다.

신(神)은 무한히 넘치어
내 작은 눈에는 들일 수 없고,
나는 너무 잘아서

신(神)의 눈엔 끝내 보이지 않았다.

무덤에 잠깐 들렀다가,

내게 숨막혀
바람도 따르지 않는
곳으로 떠나면서 떠나면서,
내가 할 일은
거기서 영혼의 옷마저 벗어 버린다.
(「고독의 끝」, 1970. 전문)

키에르케고르처럼 신에게 외면당할까 봐 절망적인 단독자와 별개의 경지이지요. 너무 신이 커서 <나>에게 수용될 수 없고, 신 또한 <나>에게 끝내 보이지 않음이란 새삼 무엇인가. 신 쪽의 거부도 아니며, 신을 거부한 경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마(靑馬)의 신 모양 아예 인간과는 무관한 허무의 신도 아니지요. 김현승의 경우는 신과 <나>의 내기에서 공평합니다. 너무 큰 것은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내쪽의 의지이자 상화이며, <나>의 존재의 미미함으로 말미암아 신쪽에서 수용할 수 없는 형국이니까. 만일 신과 무관한 자리에까지 나아간다면 어떤 경지가 열릴까. 영혼이 없는 경지가 아닐 수 없지요. 이를 일러 <절대고독>이라 하여 <견고한 고독>에서 한발 내딛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무도 고려해보지 않은 경지임엔 틀림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진정한 고독>일 법하지 않습니까.

신에 매달리고자 외치거나 발버둥질하지 않았고, 신 쪽에서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음이란 결국엔 어디에 닿는 것일까. 무신론의 경지일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째서? 바로 이 물음 속에 <절대고독>의 참 모습이 가로 놓여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신의 무한성이나 절대성이 부정되었지만 허무에 빠지지 않는 것이 최후로 놓여 있었기 때문, 곧 <양심>이 그것.

먼저 지적되는 것은 김현승에 있어 신앙(신)이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 목사가문의 둘째 아들이며, 형 역시 목사였음을 염두에 둔다면 또 그가 신사 참배거부로 이름난 평양 숭실전문학교에서 공부했음을 고려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신을 적극적으로 구한 것이 아님에 주목할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태어나보니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고, 또 자연스럽게 그 환경

에 익숙해졌을 터입니다. 그의 처지에서 보면 이는 기독교 집안이라는 또 신앙적 환경이라는 일종의 보편성(좋은 의미)이라 할 것입니다. 가문의 전통이었으니까. 이에 비해 개개인은 저마다의 <기질적 개성>이 따로 있기 마련이지요. 김현승에 있어 이 <기질적 개성>이 어느 순간 크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을 터, 그것도 거의 중년에 가서입니다. 고독이 그것. <혼자 있음>을 기질적 개성으로 갖고 살아온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서도 신앙이라는 가문의 보편성의 원리에 짓눌려 오다 만년에 가서야 마침내 그 보편성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기질적 개성이 보편성(기독교적 개성)을 뚫고 분출해 올라왔겠지요. 그 자신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재작년(1972) 2월 말경에 며칠째 머리가 흐리멍텅하더니 하루는 쓰러져 버렸다」라고. 환갑을 며칠 앞둔 시점. 둘째 아들 혼례식장이었지요. 이 충격의 원인을 시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와 목사이었던 나의 형은 전문학교 다닐 때까지도 방학 때 집에 내려가면 목사님이시던 아버님이 사랑채에 우리를 불러 꿇어앉게 하시고 객지에서 공부할 때 십계명을 어긴 일이 있느냐고 조목조목이 물으셨다. 그러나 형과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어기지 않았다고 떳떳이 대답하곤 하였었다. 그리고 저녁 예배에서는 가끔 성단에 올라 서 서투른 설교나마 때때로 하였었다. 그 순진하였던 청년시절에 비하면 육십에 가까워진 근년의 나의 생활은 얼마나 신앙과 멀어지고 있었던가! 결국 나라는 인간은 세상의 문학으로는 썩어질 이름을 얻은 것 같았으나 그만큼 신앙을 잃고 천국을 향하는 길에서 까마득히 멀어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나의 신앙적 배반을 오래 참고 보시다 못하여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치셨던 것이다.」(『고독과 시』, p. 162.) 1974년에 쓰여진 시인의 참회록이라 하겠지요. 신으로부터 멀어져간 대가로 주어진 것이 바로 <쓰러졌던 사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 <썩어질 문학의 이름>의 대가로 시인을 쓰러뜨렸던 것, 그 <썩어질 이름>이 바로 <절대고독>을 가리킴입니다. 신의 압력, 신과의 긴장관계에서 벗어나야 시가 만들어진다고 시인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말을 바꾸면, 신앙과 시의 분리문제에 매달림으로써 시인은 약간의 문학적 성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견고한 이미지에의 집착, 마침내 <절대고독>에까지 이르고 만 것이었지요. 이 나라 시문학사의 처지에서 보면 김현승의 저러한 견고성의 시적 달성이란 커다란 봉우리로써 큰 성과임엔 틀림

없습니다. 감각적 민감성의 정지용, 문명의 모습을 원시적 이미지로 포착한 김기림, 「오감도」(1934)로 정리되는 이상의 슈리얼리즘 등과도 선을 긋는 김현승문학의 성과는 단연 문학사적인 사건성이겠지요. 견고성, 절대고독 등의 관념성을 시에로 순화시킨 것은 오직 김현승시에서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죠. 견고함, 절대고독 등이란 실상 헤브라이즘에 대한 후천적 훈련의 결과이겠지요. 요컨대 이 나라 시사에서는 뚜렷한 하나의 봉우리에 틀림없습니다.

(객)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 김현승은 이런 성과를 싸잡아 <씌어질 이름>이라 했습니다. 그 시점이 1972년 전후, 회갑을 맞이할 그 무렵 그는 쓰러져 혼수상태를 지속했던 것. 신이 이런 김현승을 후려쳤던 것.

(주) 그러나 신은 시인을 버리지 않았다고, 시인 스스로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러던 중에 나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1973년, 인용자)의 어느 겨울에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다. 나의 느낌으로는 죽었던 것이다. 그러나 며칠만인가, 얼마 만에 나는 다시 의식을 회복하고 살아나게 되었었다. 죽은 가운데서 누가 과연 나를 살렸을까? 나는 확신한다! 그 분은 나의 하느님이시다.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들, 나의 온 집안이 모두 믿고 지금도 믿고 있는 우리의 신이, 하느님이 나에게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이 어리석은 나를 살려놓으신 것이다. 개인적인 신념치고 나의 이 신념과 이 신앙처럼 더 확실하고 더 굳센 신념은 지금 이 지상에는 더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고독과 시』, p. 167.) 1974년 시점에서 김현승의 도달점입니다.

(객) 그렇다면 영혼까지 부정한 저 「절대고독」이란 무엇인가. 잠시 헛것에 들렸던 것일까. 시인 김현승에 있어 신앙이란 한갓 부차적인 영위에 지나지 않았고, 그 결과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던 것일까. 이제 정신이 들고 보니 <시 짓기>란 한갓 부차적인 것. <생활의 전부>일 수 없다는 자각에 이르렀다는 것. <시 짓기란 내 생활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자각에 이르렀다면 이는 그동안 시 짓기를 일삼아온 그래서 생활의 전부로 여겨온 행위의 결과인 시들은 과연 무엇일까. 「절대고독」을 스스로 부정한 것일까. 부정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갓 부차적인 것이겠는데요.

(주) 시인 김현승론과 인간 김현승론이 각각 분리되는 현장에까지 이른 셈이지요. 이 둘을 전체상으로 파악하는 방도는 없는 것일까. 이런 물음도 이젠 피해가기 어렵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쪽의 논의도 부실해질 염려가 있겠지요.

Ⅳ. 사실과 관습의 균형감각

(객) 시인의 말대로 신이 <죽음>을 들고 나와 시인을 후려쳤을 때를 원점으로 하여 일단 그 이전과 이후를 따로 논의해야 될 처지에 우리가 놓였습니다 그려.

(주) 좋은 지적입니다. 김현승은 나이 47세에 숭실대학 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해에 「나의 고독과 나의 시」(1960)를 썼습니다. 그 동안의 자기의 시적 생활을 개관한 이 글에서 신앙에 대한 회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의 일생을 믿어온 기독교에 대하여 회의를 일으키게 된 이유를 여기 짧은 지면에 다 쓸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중대한 논리적인 이유와 현실적인 이유로 나눌 수 있다.」(『시와 고독』, p. 206.)라고.

(객) 논리적 이유란 쉽사리 짐작됩니다. 첫째 하느님이 <유일신>이 아니라는 것. 어째서? 만일 기독교만이 유일신이라면 세계의 온갖 다른 종교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공경하지 말라」(십계명)을 보아도 이 점을 알 수 있다는 것. 또 일원론일 수 없는 것은 악마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 이원론이 아닐 수 없지요. 이 점에서 오직 알라신만을 내세운 코란의 종교와도 구별되는 것.

(주) 그렇죠. 김현승도 꼭 같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내세운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현실적인 이유로는 나는 거의 일생을 교회를 상대로 하여 살아 왔다. 그러나 내가 얻은 결론은 교인들의 생활과 마음가짐이 일반사회인의 그것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이다.」(『고독과 시』, p. 207.)

특유한 형식을 지키는 면에서만 다를 뿐 실생활 면에서는 영혼 중심의 교인들이 육체 중심의 사회인과 다를 것이 <전혀>없다는 것. 이것이 그의 오랜 체험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것.

(객) 논리적 이유와 현실적 이유를 들어 회의론자가 되었을 때, 그의 시가 시사에서 갖는 뚜렷한 성좌로 빛났다는 논법이 성립됩니다 그려. 대체 이를 어떻게 평가, 수용해야 적절할까요.

(주) 1962년 무렵 김현승은 「인간다운 기본정신」(현대문학, 1964. 9.)을 발표했지요. 기본적인 정신이란 무엇인가 스스로 묻고 또 답해 놓았지요.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기초적 가치>가 그것. 다르게 또 그는 이를 <순수가치>라 했지요. 무기의 가치와 꽃의 가치를 대등한 위치에서 평가할 줄 아는 정신, 인간의 가치란 한갓 상대적인 것이기에 <독선>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마음가짐이 그것. 이것이 기본정신이며, 따라서 보편성이라면 특수성이란 한갓 부차적이 아닐 수 없지요. 개인의 기질과 특성이라든가 가문의 전통이라든가 특정 종교 신앙하기 따위란 제이차적인 가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기에 그가 이렇게 자기규정함도 가능합니다. 「나는 인간으로서는 결점도 많지만 시에서만은, 시를 쓸 때만은 참되고 정의롭고 양심적이려 한다. 이러한 수련으로써 나의 인간가치도 점차로 순수로 연단(鍊鍛)될 수 있으리라 기대를 스스로 가져보는 것이다.」(『현대문학』, 1964, 9. p. 42~3.)라고.

(객)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보편성이 우선하고 특수성이란 부차적이겠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의 作品에 어떤 思想의 갈래 즉 具體的인 특수한 精神이 作用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앞으로의 나의 詩는 아무래도 基督敎의 神을 相對로 形而上的인 世界로 나가기 쉬울 것 같이 나 自身이 느낀다. 그것은 基督敎의 바탕에서 낳고 자라난 나의 年齡과 詩의 年條가 不惑을 넘어선 지금 必然的으로 그러한 段階로 나의 詩를 發展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나는 또한 信仰에 순응하기만 하는 詩人은 아니다. 人間의 內在的인 것과 神의 超越的인 것이, 나의 詩 안에서 부딪쳐 衝突하고 소용돌이치는, 말하자면 懷疑와 反抗과 葛藤과 理解와 攄得으로 몸부림치는, 정상적인 信仰과는 자못 容貌가 다른 追求의 世界를 나는 나대로 걸어가 볼 것이다.」(윗글, p. 43.)

(주) <시에서는 시를 쓸 때만은 참되고, 정의롭고 양심적이려 한다.>고 1964년도에 천명해 놓았지요. 시에서만 적용되는 절대적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실생활이란 한갓 부차적이지요.

(객) 신의 처지에서 보면 영락없는 회의론자, 나아가 무신론자의 마음자리이지요. 신과 시를 동등한 자리에 또 나아가 신보다 윗자리에 시를 놓

은 형국이니까. 이를 지켜보던 신이 1970년에 이 시인을 준엄한 죽음의 채찍으로 내리쳐 쓰러뜨렸다!

(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다시 깨어나게 하시어 나의 과거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하여 나는 고혈압 증세를 앓기 전보다 신앙을 회복하고 자신의 죄과를 깨닫고 신앙에 정진하려고 지금은 노력하고 있다.」(『고독과 시』, p. 163.)

(객) 「내가 병후에 첫째로 해야 했고, 한 일은 나의 문학관의 개조와 혁신이었다.」(『고독과 시』, p. 163.)

(주) 시의 가장 가벼운 깃틀도 스밀 수 없는 절대고독, 호랑이도 건들어 볼 생각을 품지 않는 바윗덩이 같은 절대고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형이상학에로 믿고 끝도 없이 치닫던 이 준마는 어떻게 자기개혁을 시도했던가. 이 물음이야 말로 결정적입니다.

다음 시가 이를 잘 말해주는 것.

나는 차를 앞에 놓고
고즈넉한 저녁에 호올로 마신다.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事實일 뿐,
차의 짙은 향기와는 관계없이
이것은 물과 같이 담담한 事實일 뿐이다.

누구의 시킴을 받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손으로 들국화를 어여삐 가꾼 것도 아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이와 같이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울 뿐,
이것은 다만 事實이며 또 慣習이다.
나의 고즈넉한 慣習이다.

물에게 물은 물일 뿐
소금물일 뿐,
앞으로 남은 十年을 더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도 나는 나일뿐,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뿐,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이
차를 마시는 事實과 慣習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도 된다.
(「사실과 관습」, 1970년 가을)

<고독 이후>라는 부제가 붙은 이 작품만큼 <김현승스런 현상>이 따로 있으랴.

(객) 선생이 감탄하고, 탄복하는 이유를 이제 알만합니다. 인류적 보편성과 개인적 기질로서의 특수성을 아주 자연스럽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란 인류적 보편성(만물의 이치)이며, 관습이란 기독교로서의 특수성인 것. 인류사의 시선에서 보면 그렇지요. (만일 기독교가문을 보편성으로 상정한 장면이라면 앞에서 이미 지적했던 김현승 개인적 기질이란 한갓 특수성이지요.)

(주) 그가 아는 모든 것은 바로 융화랄까 종합에 있었던 것. 이때 비로소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도 된다는 것이니까. 관념에도 사라지고, 구체적 묘사도 꼬리를 감추었지요. 거저 담담한 서술체라고나 할까요. 한동안 종교를 비판하고 회의한 것도 결국은 종교에 귀의하고 싶은 심정의 <변태적인 발로>(『고독과 시』, p. 214.)였을 터입니다.

(객)「절대고독」이란 일종의 <변태적인 발로>이어서 목에 힘을 꽉 준 형국. 그 단계를 넘어서자 <사물>과 <관습>으로 정지된 형국. <변태적인 발로>의 극복이야말로 만년의 도달점이겠습니다 그려.

<고독 이후>의 시가 아름다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시사에서는 어떠할까요. 신앙을 되찾은 것은 좋지만, 그것이 이 나라 문학사에서 보면 어떠할까요.<변태적 발로>의 위치말입니다.

(주) 거기까지 논의할 자신이 없습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문제제기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V. 고독과 미의 동시성

(객) 선생의 능력이 모자란다는 것은 알지만 문제제기만도 조금은 의의가 없지 않을 듯합니다. 이 글 머리에서 선생이 논의한 것은 골드만의 <두 사람의 책상들기>였습니다. 방법론이었던 셈이지요. 데카르트는 신앙인이지만, 그의 합리주의는 무신론이다!

신앙으로서의 기독교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목사의 가문에서 낳고 자라 시인이 된 사람에 관해서도 이해하기란 실로 어렵지요. 작가론의 난점이 여기에서 옵니다. 이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창작주체의 집단성론이지요. 골드만이 요컨대 복합성을 집단이라는 큰 단위로 환원시킴으로써 조금씩 단순화시킴이라고나 할까요.

(주) 신앙으로서의 기독교쪽을 단순화시킴이 그 첫 번째 과제입니다. 비서구권의 한국적 기독교가 이에 관련될 터입니다. 여기서는 모더니스트이자 가톨리시즘으로 대표되는 정지용시학과의 대비가 요망될 터입니다. 정지용과 김현승 두 사람의 <책상 들어올리기>를 과제로 삼노라면 좀더 단순성(과학성, 객관성)이 얻어질지 모릅니다. 다른 하나는 김현승의 시적 업적을 이 나라 문학사와 견줌입니다. 이때 모더니즘으로서의 서구적 시의 운용방식의 과제에로 단순화될 수 있겠지요.

이런 연구가 조만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객) 아까도 선생 머리 속엔 김현승이 자주 언급한 T.S 엘리엇과의 비교검토도 들어 있지 않은가요.

(주) 지금 단계로서는 다만 머리 속에 둘 수밖에 없네요. 비서구인의 기독교 신앙과 서구인의 그것과의 비교란 실로 대논문감이니까요.

(객) 엘리엇의 특질은 그 지적인 풍모에 있다는 것. 그 정서를 노출시키지 않는 지성 속에 얼마나 깊숙한 멋이 스며 있는지 모른다는 것, <나는 그러한 멋을 잔뜩 간직한 엘리엇의 지성이 좋았다.>(『시와 고독』, p. 198.)라고 공언한 김현승이고 보면 한 가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네요. 시인의 개성이란 시와 무관하다는 것, 곧 매개물(백금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T.S 엘리엇, 「전통과 개인의 재능」)

(주) 동감입니다. 문학이 문학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은 <문학적 기준>

에 의해 판가름나 옳다는 것. 이는 물리칠 수 없는 점이지요. 그러나 가령 문학이 어떤 각도에서 읽히더라도 그 영향은 언제나 인간적 전체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 「문예비평은 하나의 명확한 윤리적 신학적 견지에서 행하는 비평에 의해 보충되었을 때 비로소 완전을 기할 수 있다.」(엘리엇, 『종교와 문학』 Ancient and Modern, p.93.)라고 엘리엇이 말했음을 상기해 보기 바랍니다. 서구인이 아니고는 이런 대목을 이해하기에 심한 난처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요컨대 장차 쓰여질 김현승론에서는 비서구인 그것도 한국인의 기독교와 시의 관계항이 전개될 수도 있겠지요.

(객) 시사적으로도 시인론으로도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대화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려. 뭔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도 보편성과 기질적 개성에 대해 우리의 대화가 집중되었어야 했을 터입니다. 곧, 기질적 개성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했을 터입니다. 실상 우리의 대화는 그 잘난 인류적 보편성에 너무 기울어졌지요.

(주) 우리 잘못만은 아니겠지요. 시인 자신이 보편성에 기울어져 고투했으니까. 시를 잃어버릴 만큼.

(객) 기질적 개성에 관심을 모은다면 그 중심은 어디일까요.

(주) <까마귀>이지요. 잘 살펴보면 이 시인이 유년기에 까마귀에 홀려 있었음이 판명됩니다. 한 겨울 하늘을 가득 채우는 검은 새. 그의 울음소리만큼 시인을 감동시킨 것은 많지 않습니다.(『고독과 시』, p.35~38.) 개인적 기질인 까닭에 아주 드러내기를 꺼렸다고나 할까. 까마귀의 부정적 이미지를 독창적으로 되살렸다고 해석한 김현승론도 있습니다.(곽광수, 『가스통 바슐라르』, 민음사, 1995. p. 274.)

관념적 형이상학적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시 「겨울까마귀」(1965)는 진짜 김현승스런 현상이 아닐 것인가. 유년기에서부터 친해진 검은 겨울새. 자기의 영혼의 흙벽이라도 덤북 물고 있는 소리를 가진 새. 시인으로서나 인간으로서나 그것은 죽음을 걸고 보편성에 치달아가는 결과물이지요. 그러기에 부질없이 시인은 보편성에 온 힘을 쏟은 것은 아닐지요. 이 점이 곧 관념에 약한 이 나라 시단을 확장시킨 업적이지요. 잠시 음미함으로써 우리의 엉성한 대화를 마치면 어떠할까요. 고독(기질적 개성)과 미(보편성)의 동시적 인식이 비로소 이루어진 경지이니까.

영혼의 새.

매우 뛰어난 너와
깊이 겪어 본 너는
또 다른,

참으로 아름다운 것과
호을로 남은 것은 가까와질 수도 있는,

언어(言語)는 본래
침묵으로부터 고귀(高貴)하게 탄생한,

열매는
꽃이었던,

너와 네 조상(祖上)들의 빛갈을 두르고.

내가 십이월의 빈 들에 가늘게 서면,
나의 마른 나무가지에 앉아
굳은 責任에 뿌리 박힌
나의 나무가지에 호을로 앉아,

저무는 하늘이라도 하늘이라도
멀뚱거리다가,

벽에 부딪쳐
아, 네 영혼의 흙벽이라도 덤북 물고 있는 소리로,
까아욱—
깍—
(「겨울까마귀」(1965), 전문)

(객) 이 경지에서 멈추어야 했을 터이지요. 시인은 부질없이 여기서 벗어나 갈 데까지 가 보자였던 것. 「절대고독」(1968)에 까지 한발 떼어놓았던 것. 인간적 보편성과 기질적 개성의 분리에까지 밀어 붙였던 것. 그 결과는 죽음이었지요. 신의 경고가 그것.

(주) 그 어느 쪽에서도 미가 머물 수는 없었던 것.